

사무라이 레이싱 in 전국시대

프롤로그

약소국 출신 사무라이의 경마 도전기

배경 스토리

때는 전국시대.

주인공인 오키타는 일본 변방에 있는 어느 작은 나라 출신의 평범한 사무라이이다.

그러던 중, 오랜 전쟁으로 인해 지쳐버린 영주들은 한 가지 제안을 하기로 한다.

경마 경주를 개최하겠다

여기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의 나라는

일본을 통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다

오키타는 나라의 명예를 등에 지고 경주에 참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그는 소중한 동료 카제마루와 함께 수도인 에도로 향하게 된다.

게임의 목적

말 타기 경주에서 우승하고 나라를 통일시키자!

주요 캐릭터 소개

이름	오키타	나이	21세
종족	인간	직업	사무라이
외모	검은 눈동자, 검은 머리. 작지만 다부진 체격, 오른쪽 허리춤에 칼을 차고있다.		
성격 및 특징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 울곧고 밝은 성격으로 마을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동료인 카제마루를 만나고 그의 인생은 전반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름	카제마루	나이	7세
종족	말	직업	-
외모	갈색 털을 가졌다. 조금 사나워 보이는 인상.		
성격 및 특징	오키타는 사무라이가 되기 전, 길가에 버려진 말을 거두어 정성으로 돌봐주었다. 그렇게 그는 오키타의 둘도 없는 동료가 되었다. 주인과는 죽이 잘 맞는 듯하다.		

이름	가게 아저씨	나이	43세
종족	인간	직업	가게 주인
외모	수염이 조금 나있고, 마른 편이다. 인상이 좋고, 항상 앞치마를 두르고 있다.		
성격 및 특징	사교적인 성격으로 단골손님인 오키타와 매우 친밀하다. 오키타에게 경마 대회에 나가볼 것을 권유하기도 한다. 여러모로 오키타의 든든한 지원군.		

모험 지역 소개 & 세계관



- 자연환경-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4개의 열도로 이루어진 땅이다.

사계절이 뚜렷하며, 국민들은 주로 농/어업에 힘쓰고 해산물을 주로 먹는다.

지진이 크게 일어날 뿐 아니라 태풍 해일 등 자연 재해가 잦은 편이다.

- 시대 상황-

수많은 영토에서 서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여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긴 전쟁에 지친 영주들은 휴전협정을 맺기로 하고, 각 영토의 존속이

걸린 경마 대회가 개최된다. 사방이 바다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기만 한다면 결국

돌아오는 건 피해 뿐이기 때문이다.

대사

Scene 1 -가게 안-	
발생 조건	처음 게임을 시작했을 때
목표 미션	자동 스토리 진행
카메라 및 연출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오키타와 그를 기다리는 말 한마리, 가게 아저씨는 진심으로 그를 환영하며 이야기를 건넨다.	
대사	
(가게 안으로 들어간다) 오키타 : 아저씨, 오늘은 좋은 물건 있나요? 가게 아저씨 : 그럼! 오늘은 이 물건을 추천 한단다. 아 참, 요즘 일은 잘되어가니? 오키타 : 요즘 세상이 전쟁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높으신 분들 호위하는 일만 잔뜩 받고있어요. 가게 아저씨 : 그렇구나. 오키타 너만 괜찮다면 제안을 한가지 하고싶은데,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온 지방의 영주들이 휴정 협약을 맺고 경마 대회를 개최한다는 이야기야. 오키타 : 경마 대회요? 가게아저씨 : 그래 그래. 말을 타고 경주하는 대회인데, 우승자의 마을이 온 일본을 통일 할 수 있다는거야. 어때 관심없니, 오키타? 오키타 : 저야 물론 괜찮지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네요. 온 일본의 통일이라니... 가게아저씨 : 너는 할 수 있을거야. 든든한 동료도 있잖니. 오키타 : ...네. 카제마루도 좋아할 것 같고 한번 해볼게요! 저희의 마을을 위해서. (그렇게 경마 대회에 나가기로 결심한 오키타는 서둘러 에도로 향했다.)	

Scene 2 -대회장-	
발생 조건	프롤로그 스토리를 전부 읽은 후 대회장으로 가기.
목표 미션	대회에 참가하기.
카메라 및 연출	
<p>국가 규모로 열리는 커다란 축제의 장이 한눈에 보인다.</p> <p>대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들로 가득하다.</p>	
대사	
<p>오키타 : 우린 잘 할 수 있을거야. 맞지, 카제마루?</p> <p>카제마루 : (긍정의 눈빛)</p> <p>오키타 : 좋아! 그럼 잘 부탁해, 파트너!</p> <p>(출발음이 울리고 출발선을 뜨는 오키타와 카제마루)</p>	